

총선 설 민심 제대로 읽어야 한다

김경 칼럼



본사 회장

총선 표심의 바로미터인 설 연휴 민심 탐방에 나선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 개혁 성공과 제3세력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며 지지세 확산을 위한 민심탐방에 전념했다.

설민심은 다가올 총선의 바로미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설 밥상머리 화두로 떠오른 민생·경제, 국정개혁이 북돋움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민생·경제의 이슈들에 대해 모두가 어렵다는데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다른 이슈에 관해서는 여야의 분석은 크게 엇갈렸다.

특히 총선 이슈와 관련해서 그 차이가 더욱 확연했다. 여권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텃밭의 높은 지지세를 주장한 반면 야권 인사들은 견제를 위한 제3세력 통합의 요구가 만만치 않았다고 아전인수식 주장으로 지역민들의 엇갈린 민심을 평가하고 나섰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에 관해 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권 인사들은 "자영

업자의 경기회복을 요구하는 바람이 많았다"며 민생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야권은 밀바닥으로 추락한 경제실정(失政)에 정부, 여당에 불만이 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정개혁에 대한 제감에서도 차이는 확실했으나 검찰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지지세에 따라 지지와 실망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정개혁추진에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지역민들은 검찰의 일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다.

총선을 둘러싼 밀바닥 민심에 대한 입장차는 확연했다. 민주당은 "정부 개혁에 더 속도를 내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얻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야권 인사들은 "정치적 선택지 확장" 등을 거론하며 제3지대의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이런 정치권의 민심분석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광주·전남이 그렇다. 예년의 총선과 달리 여당의 텃밭 탈환과 야권의 수성이라는 이번 총선 구도로 인해 설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양측의 분석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럴싸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반성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신들에게 유리한 총선 승리의 섹션과 전략을 교묘히 포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제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총선시기는 더욱 급하게 돌아간다. 정치권은 이번 설민심탐방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역 일꾼으로서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유권자에게 약속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다. 총선 성적표는 정치인들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社說

심각한 '우한 폐렴' 확산, 지자체 방역 강화해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심각하다. 중국에서 26일 하루에만 796명이 확진됐고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20명이 넘게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전파속도 역시 급격히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4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또 앞서 3번째 환자의 경우 입국 당시 증상이 없어 공항 검역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 격리 전까지 활동하며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어 지역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국내 3번째 확진자는 입국 후 이틀이 지나서야 열감과 오한, 몸살이 시작됐고 5일 후 기침과 가래 증상이 나타나자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발병 이후 적어도 사흘간 지역사회에 노출된 것이 문제지만 잠복기에 이환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 봉쇄령이 내려진 우한에서조차 주민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약 500만명이 이미 도시를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섞여 있는 환자들이 중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자가 나왔다. 또 앞서 3번째 환자의 경우 입국 당시 증상이 없어 공항 검역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 격리 전까지 활동하며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어 지역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국내 3번째 확진자는 입국 후 이틀이 지나서야 열감과 오한, 몸살이 시작됐고 5일 후 기침과 가래 증상이 나타나자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발병 이후 적어도 사흘간 지역사회에 노출된 것이 문제지만 잠복기에 이환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확산우려가 커지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관계 공무원 6개 반 122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운영하고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지정, 접촉자 관리에 나섰다. 전남도 역시 일선 시군 방역대책반 책임자를 부단체장으로 격상하고 선별 진료의료기관 운영에 나서며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국립목포검역소와 연계해 입국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안 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 여행객의 검역도 강화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내 3번째 확진자는 입국 후 이틀이 지나서야 열감과 오한, 몸살이 시작됐고 5일 후 기침과 가래 증상이 나타나자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발병 이후 적어도 사흘간 지역사회에 노출된 것이 문제지만 잠복기에 이환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확산우려가 커지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관계 공무원 6개 반 122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운영하고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지정, 접촉자 관리에 나섰다. 전남도 역시 일선 시군 방역대책반 책임자를 부단체장으로 격상하고 선별 진료의료기관 운영에 나서며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국립목포검역소와 연계해 입국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안 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 여행객의 검역도 강화했다.

공공기관 등 출입국 과정의 방역 시스템을 아무리 완벽하게 구축해도 잠복기의 환자까지 완벽하게 찾아낼 수는 없다. 따라서 지자체나 병원 등 공적 부문의 예방과 대응 노력 못지않게 개개인의 성숙한 예방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 등 위험지역에서 온 입국자는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인 1-2주일간 다중이용시설을 피도록 가급적 경미한 증상이라도 있으면 즉각 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해외 여행력도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일반 국민은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함께 힘을 합쳐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해외 여행력도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일반 국민은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함께 힘을 합쳐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색빌딩 5층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박종수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선운로 18(서초동)	영진빌딩	6층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일한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 기고

평범함 삶이 주는 행복



국중균

광주북부소방서 행정지원담당

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수 없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내편에서 서서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이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망 끝에 서보면 절실히 느낄 수 있다. 나는 매일 행복하고 감사하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 중에 병원에 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행복했던 날들이 기억에 남을까! 생각하면 행복은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우리 곁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행복한 고민'이라는 말을 가끔 사용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한 쪽은 분명 행복한 고민들이다. 평소에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높은 산에 올라 산소 결핍증을 겪는다든지 도시의 매연 속에서 숨쉬기 어려운 상황을 겪어봐야 알듯이 우리는 대체로 일상의 평범함에서 행복을 느끼는 훈련이 부족하다. 자동차를 매일 타는 데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없으면 그때야 비로소 불편함을 느끼고 존재 가치를 인식한다. 우리는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 평소 소홀히 보아왔던 존재들의 가치를 재인식하면서 행복을 배로 즐기는 훈련을 하여보자.

크은 일이 일어난 뒤에 사소한 평범함 속에서 행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행복은 배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평범한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면서 살아간다. 아무리 좋은 집 또는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사랑하는 가

독자 기고

고향집 화재예방은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부터

2020년 새해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평소 먼 곳에 떨어져 지내던 부모님, 친척, 이웃들과 함께하는 설에는 가정 내 가스, 전기 등 사용량이 증가하고, 명절분위기에 휩쓸려 부주의에 의한 주택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며, 소

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내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잠이 든 새벽시간대 화재발생상황을 가장먼저 알려줄 수 있는 소방시설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발생시 화재를 감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이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소방시설이다.

구입처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대는 1만원 정도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

고향가는 길 부모님택에 소화기 1대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초기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임미란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아이에게 꿈을 읽어 주세요

지금,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1:1 책 읽어 주기가 시작됩니다.
사서와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납니다.